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음식문화 적응 경험 분석

이 정 숙<sup>†</sup>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nalysis of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Jeong-Sook Lee<sup>†</sup>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 <sup>†</sup>Corresponding author

Jeong-Sook Lee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Kosin University, 194 Wachi-ro,  
Yeungdo-gu, Busan 49104,  
Korea

Tel: (051) 990-2328  
Fax: (051) 628-2940  
E-mail: jslee@kosin.ac.kr  
ORCID: 0000-0000-7353-8352

####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sin University

Received: February 27, 2017  
Revised: March 22, 2017  
Accepted: March 22, 2017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experience on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especially identifying the symbolic meaning and nature of experienc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ix married female immigran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qualitative materials which consisted of in-depth interviews, field notes and materials. Data was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Results:** The results were deduced as 116 significant statements, 17 formulated meanings (sub-theme), and 6 theme clusters. Six theme clusters comprised of lack of prelimin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conflict and support in relationships, Korean food culture which is different from homeland, adaptation attitudes of Korean food culture according to situation, sharing of homeland food culture, and practical difficulty and expectative service. The participants started Korean life in the dark about Korea and Korean food culture, so they were subjected to trial and error. The conflict between Korean mother-in-law and foreign daughter-in-law came from lack of consideration of daughter-in-law's cultural background. Some participants were hurt because of misunderstanding and nitpicking. They were learning about cooking method, ingredient, seasoning, table setting and manner. Some participants integrated Korean food culture and their homeland food culture. Some of them assimilated with Korean food culture. One of them maintained homeland food culture. The participants who adapted Korean food culture well could share homeland food amicably. They sometimes didn't apply the services which were offered by the government, because the services did not fit their needs. Some of them didn't know the usage route of the services or information. They had resistance about home teaching and it showed that outreach service was not always effectiv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actical support plan which covers married female immigrants' real needs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Korean J Community Nutr* 22(2): 103~114, 2017

**KEY WORDS** dietary life, adaptation, experience, qualitative method, female marriage immigrant

## 서론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도 활발한 국제교류와 더불어 인구 구성에도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15년 11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71만 1,013명으로 전체인구의 3.4%에 해당하고, 이중 결혼이민자는 151,608명으로 남자 23,272명, 여자 128,336명이다[1].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도 다양한 구조로 변화되어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고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결혼이주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기본정보나 문화,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문제, 생활습관의 문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3].

결혼이주여성들이 처음 당면하는 어려움은 음식문화의 적응이다. 음식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섭취는 개인의 생명유지 및 건강, 가족화합, 자녀양육 등 광범위한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주여성들의 음식에 대한 적응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잘 먹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부로서의 역할 문제 및 가족갈등에도 영향을 미친다[4, 5]. 결혼이주여성의 식문화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향후 건강상태 및 질병유병율과도 관련성이 있고, 가정의 화목,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녀양육,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구축 및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음식문화의 적응을 도와주는 방안의 구축은 절실하다[6].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7], 한국 식

생활 적응 및 식행동 관련 연구[8, 9], 다문화화의 식문화 관점에서 다양한 음식문화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및 결혼이주여성의 지원방안 연구[10] 등과 건강검진센터[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1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4], 한국 어교실[13], 건강가정지원센터[8]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기관을 활용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식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양적연구가 진행되어 왔을 뿐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적응과정에서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 적응 경험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식생활문화 적응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 적응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식생활 문화 적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자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 IRB 2015-0107-01)을 받아 부산시에 거주하는 거주기간 3년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모집하였고,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Dukes[14]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3~10명의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권장했으므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결혼이주여성 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화에 이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까지 인터뷰가 가능했던 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연구참여자 1은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개월만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한 후 9개월 뒤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 온지는 3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시어머니, 남편, 딸(3살)과 함께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Table 1. Demographics of the study subjects

No	Age	Nationality	Education level	Length of residence	Job	Husband's job (age in years)	Family members living with the study participant
1	24	Vietnam	High school	3 yrs	Housewife	Truck driver (46)	Mother-in-law, husband, 2 daughters
2	30	Laos	High school	6 yrs	Housewife	Electrician (38)	Parents-in-law, husband, daughter
3	27	Vietnam	High school	4 yrs	Housewife	Bus driver (47)	Mother-in-law, husband, daughter
4	32	Philippines	High school	5 yrs	Housewife	Shipwright (50)	Father-in-law, husband, 2 daughters
5	53	China	High school	13 yrs	Self-employed	Unemployed (55)	Husband, daughter
6	36	China	Graduate school	10 yrs	Chinese teacher	Public officer (39)	Parents, husband, daughter, son

연구참여자 2는 라오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고 결혼한 후 1년 뒤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 온지는 6년 정도 되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딸(4살)과 함께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은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과 결혼한 사촌언니가 잘사는 것을 보고 한국인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한국에 온지는 4년 정도 되었다. 시어머니, 남편, 딸(3살)과 함께 전업주부로 살고 있으며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다.

연구참여자 4는 필리핀에서 중학생 때 한국에 관해 배운 후부터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동경하고 있다가 인터넷 채팅으로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간호학과 1년 중퇴 후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한국에 온 지는 5년 정도 되었다. 시아버지, 남편, 큰딸(5살), 작은딸(2살)과 함께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시아버지는 현재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다.

연구참여자 5는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남편을 소개받아 2년간 사귀다가 결혼하였다. 부모님이 조선족이다. 한국에 온지는 13년 정도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는 남편, 딸(11살)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쉬고 있으므로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중국에서 대학졸업 후 한국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다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남편, 친정부모님, 딸(8살), 아들(5살)과 함께 살고 있다.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무남독녀라 퇴직하신 친정부모님이 한국으로 와서 살림과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있다.

## 2. 조사방법 및 내용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식문화 적응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4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수행방법과 면담 질문지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6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모든 부정적인 사례들도 조사될 때까지 수집함으로써 자료의 충분성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15] 심층면담을 선택하였다. 질문지는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주 전 한국에 관한 사전지식 정도 및 한국 식문화 경험 관련 질문, 이주 후 한국 식문화 적응 과정 및 교육 경로, 가족 간의 식문화 차

이에 대한 인식 및 극복과정, 가족의 역할기대, 이주 후 식생활 및 기호의 변화, 모국 식문화의 공유 및 전파, 정부나 단체의 결혼이주 여성 정책 실시에 대한 개선점 및 건의사항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합의하여 정하였으며, 참여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한 다음 반구조화된 개방적인 질문을 토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관찰된 내용은 현장노트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 단계별로 요약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면담시간은 1시간30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끝난 후 1~2일 내에 바로 전사하였고, 1차자료를 분석한 후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료가 포화되도록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연구과정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을 설명한 뒤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 3. 자료분석

현상학적 분석은 드러난 그대로의 현상을 매개하는 언어나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경험의 의미를 보전한 채 건져낼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Giorgi는 인간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기술을 그 출발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상황의 구체적 구조 기술에서 연구참여자의 개별적인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의식의 내용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며 그들 경험의 질적인 다양성을 이해하고자하고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Giorgi의 연구방법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음식문화 적응 과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심층 깊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면담자료는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16]. 1단계는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로 전사된 진술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와 맥락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경험에 공감하고자 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다시 읽으며 의미단위를 구분한 다음, 진술내용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범주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의미단위들을 중심 의미로 주제화하고 연구참여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진술내용을 구체적인 범주로 변형시켰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구성요소를 통합하고,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경험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

술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credibility), 적합성 (fittingness), 감사가능성 (auditability), 확증성 (conformability)의 요건을 갖추고자 하였다[17].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질문을 개방형으로 시작하고, 면담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실시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경험과 견해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표현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구성원 검토 작업 (member check)을 거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동료 3인과 주요진술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제군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질적연구의 적합성은 상황에 대한 다양성, 현상의 보편성이나 깊이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상황을 토대로 의미를 추출하여 기술하고, 다양하게 설명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적합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감사가능성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접근, 자료수집 절차를 기술하고 Giorgi의 분석 절차를 따름과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진술문을 직접 인용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분석,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체계성, 엄밀성을 지키고 확증성을 갖추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진술내용, 인터뷰 관찰일지, 전화 인터뷰 내용, 이메일 내용 등을 모두 자료화 하여 코딩하였다.

## 결 과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음식문화에 적응하

면서 경험한 의미단위를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군과 17개의 범주, 116개의 주요진술로 도출되었다(Table 2).

### 1.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했던 시작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 한국의 문화와 식생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한국어만 겨우 조금 배워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한 경우는 결혼을 결정하고 난 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조금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한류에 의해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된 한국이 전부였던 참여자도 있었다. 조선족 부모를 둔 참여자도 결혼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사전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였고, 사전준비가 부족한 채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고향에 있는 한국어 교실에서 몇 개월 동안 한국어 배웠어요. 한국어 교실에서 하루 동안 한국문화하고 한국음식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책하고 텔레비전 (동영상) 보면서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1)”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말만 조금 배웠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어디예요?’, ‘밥 먹었어요?’ 이런 거 배웠어요. 한국와서 음식 배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르쳐주었어요. 한국 음식 매운 줄 알았지만 한국와서 김치 먹어보니까 정말 매웠습니다. (연구참여자2)”

“저는 텔레비전 하고 드라마 많이 봤으니까... 동네언니가

**Table 2.** The experiential meaning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Theme	Sub-theme
Lack of prelimin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 the dark about Korea, Korean food culture</li> <li>• Long for Korea, Korean Life</li> </ul>
Conflict and support in relations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ck of consideration of family-in-law</li> <li>• Attentive teaching of family-in-law</li> <li>• Assistant of homeland friend</li> </ul>
Korean food culture which is different from home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fferent table setting and manner</li> <li>• Various cooking methods, ingredients and seasonings</li> <li>• Unfamiliarity with holiday customs</li> </ul>
Adaptation attitudes of Korean food culture according to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gration of Korean food culture and homeland food culture</li> <li>• Assimilation with Korean food culture</li> <li>• Maintenance of homeland food culture</li> </ul>
Sharing of homeland food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eptance of family</li> <li>• Refusal or restriction of family</li> <li>• No need for sharing</li> </ul>
Practical difficulty and expectative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sence of information</li> <li>• Implementation of program close to real life</li> <li>• Open a consecutive class</li> </ul>

한국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잘사니까 나도 한국에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드라마 많이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볼 때 언제나 한국 음식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고향에서 한국드라마 볼 때 김밥, 떡볶이, 짜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연구참여자 3)”

“어머니가 조선족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북경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한국어를 엄마한테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연구참여자 5)”

“중학교 때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조금이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스스로 관심이 많다가 인터넷을 통해 한국사람과 만나게 되어서 1년간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한국음식을 먹고 싶어서 된장소스를 사서 물에 끓여만 들어 먹어보았어요. 처음에 맛 좋았어요.(연구참여자 4)”

## 2.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도움

언어와 문화차이에 의한 갈등양상이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고부갈등은 한국여성들이 경험하는 고부갈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나라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조건 한국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듯 했고,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며느리나 올케에게 차근차근 가르치기보다 야단치며 잔소리로 기를 죽이는 경우도 드러났다. 시어머니가 친절히 가르쳐주는 경우나 며느리가 부지런하고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며느리도 음식을 빨리 배우고 일상생활의 적응도 빠르게 하고, 따라서 좋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며느리가 서투니까 아예 시어머니가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고향친구의 도움으로 배워서 제사까지 차려내는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한국 왔을 때 한국말 모르고 한국 반찬 못 먹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서 어머니가 자주자주 야단 치셨습니다. 하나 하나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조건 화내시고 야단치셨어요. 처음해보니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나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금은 제 어머니 조금 바뀌었습니다.(연구참여자 3)”

“결혼하기 전까지 무남독녀로 귀여움만 받고 자라서 일은 전혀 안했어요. 중국에서는 아침부터 나가서 사먹고 여자들이 요리를 거의하지 않는데...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만며느리라 어머니께서 기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처음에는 혼도 많이 나고 게으르다고 맘에 안 들어 하셨어요. 둘째 며느리 보시고 나서는 어머니가 많이 바뀌셨어요. 한국인

인 둘째며느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신 거지요... 지금은 훨씬 잘해주십니다.(연구참여자 6).”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동네에 사는 고향친구가 나물하는 법이나 한국음식 이것저것 가르쳐줬어요. 제사도 친구에게 배워서 차렸어요. 시누이가 2명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집에 오면 오히려 큰소리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정신없게 잔소리하고 자꾸 간섭을 해요. 조금 잘못하면 가르쳐 주지는 않고 야단만 먼저해요. 아무 일도 안하고 제가 준비한 음식만 먹고 설거지도 안도와주고 가버려요. 속상해요...(연구참여자 4)”

“한국 왔을 때 처음에 몰랐는데 ‘어머니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하면 어머니가 ‘미역하고 목이하고 기름에 볶아서 찰뜨물넣고 끓이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 요리 맛있어요. 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는 ‘열심히 배워서 살림도 맡아서 해라’고 하세요.(연구참여자 2)”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된장, 시래기국 끓이는 법부터 조금씩 조금씩 배웠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익숙해서 빨리 배웠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셨죠. 지금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연구참여자 5)”

## 3. 고향과 다른 한국 식문화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이전까지 익숙했던 자국의 생활에서 한국의 문화에 적응되고 동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근차근 배운 경우와 달리 이해받지 못하고 야단맞으며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경우에는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법이나 사용 양념의 차이, 상차림이나 식사예절의 차이,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차레를 지내는 것, 친인척을 찾아가는 것 등을 생소한 가운데서 배우고 익히고 있었다. 생일문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내 고향 반찬 같은 거 잘 안 해먹어요. 음식 많이 필요없어요. 한가지 두가지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요. 한국 너무 많아요 반찬종류가 많아서 놀랐어요. 김치, 콩나물, 두부, 나물, 고기 오! 많이 있어요. 또 한국사람들은 한가지 음식을 오래 먹어 놀랐어요. 김치를 만들면 한달 두달 먹어요. 내 고향은 만든 음식을 한번 먹으면 끝나요. 남으면 버려요. 배아파요. 음식 조금씩 만들어 먹고 오후에 먹고싶은 메뉴 또 만들어 먹어요. 명절에는 절에서 제사지내요. 그리고 가족끼리 소풍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전부치고 고

기겁고 나물만들고, 시골에도 가고...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지고 재미있어요. (연구참여자 2)

“중국사람들은 손가락 잘 안 써요. 밥 먹을 때 국이 잘 없잖아요. 그릇을 들고 먹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국을 오른쪽에 놓아야 하는 것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생것을 많이 먹어요. 중국에서는 야채 볶아 먹고, 생선 구워먹고, 다 익혀 먹어요. (연구참여자 5)”

“‘삼삼하게 하라, 노릇노릇 구워라’는 것이 어떻게 해라는 것인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었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양념 종류가 너무 많아 구별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는 나도 많이 배워서 처음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4)”

“밥먹을 때 우리 베트남 손가락 잘 안 쥘니다. 아기는 손가락으로 먹지만 우리 그냥 젓가락만 쥘니다. 먹을 때 보통 그릇을 언제나 들고 먹었습니다. 손가락을 잘 안 쓰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요렇게 놓으면 넘어지지 않겠다’ 싶어 뒤집어서 놓았더니, 어머니가 손가락도 놓을 줄 모른다며 야단치셨어요... (연구참여자 3)”

“한국음식은 맵고 참기름 많이 써요. 우리도 기름 많이 쓰는데... 우리베트남에서는 멸치액젓 써요. 소금하고 멸치액젓으로 간을 해요. 한국에서는 간장을 많이 써요. 지금은 잘 먹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연구참여자 1)”

“중국에서는 생일이라고 특별한 생일상을 차리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미역국과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생일상을 차리는 점이 특이하면서도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구나...하는 생각에 감동적이었습니다. (연구참여자 6).”

#### 4. 여건에 따라 다른 한국 식문화 수용 형태

연구참여자들에게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는 어려움은 있지만 수용하면서 적응해야할 문제들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가족문화는 가부장제에 따라 며느리가 친정의 가족문화를 버리고 시댁의 가풍에 맞추는 것이므로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한국 식문화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 식문화에 동화되어 생활하는 참여자 중에는 스스로 한국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모국문화와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식문

화의 수용에 적극적이면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고국의 식문화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는 통합 형태를 보였다. 친정부모님이 가사와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는 모국 식문화가 집안 분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히려 한국 식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문제를 고민하는 주부도 있었다.

한국음식 중 입맛에 맞고 영양적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호하였으며, 자신이 먹어왔던 것과 비슷한 음식을 좋아하고, 식재료의 식감이나 향신료에 관해서는 기호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 와서 난 이제 한국사람된 거고 그렇게 한국생활 잘하고 한국음식 잘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한국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 한국식으로 살아야 해요. 좀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해요. 삼겹살하고 불고기, 삼계탕, 나물 무침 좋아요. 된장은 좋아해요, 청국장도 안 좋아해요. 미역국 좋아해요. 애기냉고 많이 먹었어요. 맛있고 몸에 좋아요. (연구참여자 1)

“한국에 온 뒤로 열심히 한국 음식 만드는 법, 상차리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한국음식 대부분 잘 만들 수 있고, 제사도 혼자 준비해요. 남편도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은 내가 ‘부엌일을 잘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부로서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가 아빠나라 문화와 엄마나라를 반반씩 배워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아이에게도 그냥 한국말 한국문화만 배워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좀 더 한국생활에 익숙해지고 한국말을 잘하게 된 후에는 꼭 제 고향문화를 가르칠 거예요... 한국음식의 새콤달콤한 맛과 나물 맛을 좋아해요. 보리밥 비빔밥을 좋아해요. 고기는 먹는데 생선은 필리핀이랑 냄새가 다르고 이상해서 싫어해요. 떡이랑 식혜는 달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더 단맛을 좋아하거든요. 필리핀 떡은 코코넛하고 설탕, 꿀 넣어요. (연구참여자 4)”

“제가 열심히 한국 식문화 배우지만 가족들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도 엄마나라 문화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에게도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싫어하셨지만 이제는 반대하지 않아요. 고향에서는 음식을 맵고 짜게 먹어요. 야채무침에 생강하고 고춧가루, 깨소금, 마늘을 넣어요. 한국보다 양념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한국식이 더 간편할 때도 있어요. 나물무침, 매운탕, 미역국, 흰밥을 좋아해요. 콩넣으면 맛있어요. 떡을 좋아해요. 찹쌀떡 맛있어요. 송편도 맛있어요. 라오스에도 떡이 있어요. 코코넛 국물하고 설탕조금하고 해서 바나나잎나무로 묶어서 10~15분

정도 쪼요. 식혜 맛있어요. 근데 수정과는 맛있어요. (연구참여자 2)”

“우리아기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음식 잘 먹으면 좋겠습다. 가끔가끔 엄마나라 음식 요리해서 주고 문화 가르쳐 주고... 제 남편 언제나 우리아기 베트남 문화 배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아기 한국음식도 좋아하고 베트남음식도 잘 먹습니다. (연구참여자 1)”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무남독녀이라서 아이를 낳은 후에는 친정부모님이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아이를 돌봐주다 보니 집에서 고향음식을 해먹고 고향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 가는데 한국음식을 잘 먹고 좋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고민이 많아요. 한국음식을 제가 많이 배워서 해줘야 되는데..., 남편도 내가 말아서 해주길 원하지만 그러질 못하니 갈등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6)”

## 5. 모국 식문화의 공유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식생활에 적응해나가면서도 고향생각이 날 때, 남편과 자녀에게 모국문화를 알리고 소개해주고 싶을 때 모국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보였다. 주로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주부가 고향음식도 원만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고 가족의 입맛에 맞게 한국식으로 변용된 모국음식을 만들어 공유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반면 가족이 한국음식 먹기를 강요하거나 모국음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모국음식을 접하지 못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한국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자녀들은 엄마의 고향음식을 잘 먹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고향생각을 하면서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는 법을 가족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주로 손으로 식사를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손으로 찹쌀밥을 먹는 것을 상스럽다고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재미있어 하시면서 잘 드세요. 물론 아이도 잘먹고 남편도 잘 먹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매운음식을 많이 먹어서 감기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감기에 자주 걸리셔서 제가 매운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빨리 나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연구참여자 2)”

“가족들의 입맛에 맞춰서 좀 변형시켜서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번 만들어 먹는데 남편이 너무 기름진 것은 안 좋아해서 기름을 적게 넣고 만들어요. 야채도 살짝 볶아서 먹어요.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난 뒤부터 집에서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엄

마나라 음식과 문화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5)”

“시어머니가 돈이 많이 든다고 고향음식 재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임신 했을 때 처음에만 고향음식을 조금 만들어 먹었고, 그 후로는 한국음식만 만들어 먹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먹는데 너는 왜 못 먹니? 한국사람들은 잘 먹는다’고 하시지요...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된장하고 김치만 반찬으로 먹고 있었어요. 돈을 아끼려고요. 지금도 우리집은 된장하고 김치 먹습니다. 과일이나 고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임신해서 처음에 고기를 자주 먹으니 ‘한국사람 임신했을 때 보통 김치하고 된장 많이 먹었다. 너도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향음식을 가족에게 만들어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속상해요. (연구참여자 3)”

“한국에 왔으면 백퍼센트 한국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고향음식은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한국음식만 먹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고향음식을 만들어 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연구참여자 1)”

“고향음식을 만들면 아이들은 잘 먹는데 남편은 잘 먹지 못하고 따로 한국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달고 기름져서 입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중국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다고 잘 먹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6)”

## 6. 현실적 어려움과 기대하는 서비스

연구참여자들은 시어머니나 남편 등 가족이나 친구에게 음식을 배우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배웠고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초기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밖에 나가서 배울 형편이 못되었지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맡길 수 있으므로 배우러 다니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방법이 본인의 형편과 맞지 않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들의 이용경로를 모르거나 아예 정보가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어머니 아예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금하였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도 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문서비스는 참여자들이 가정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방문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누군가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자신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강사가 수

장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험을 피력하였다. 시간이 없으므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음식만들기를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이해도 잘되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책이나 동영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조금씩 배웠어요. 작년에는 선생님이 우리 집와서 한국음식 가르쳐준다 했는데 근데 우린 불편해서 신청 안했어요. 지금 한국요리는 배우고 싶어요. 집은 불편해요. 센터가서 배우고 싶어요, 아직도 음식이 낯설고 재료나 조미료가 낯설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많이 배워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연구참여자 1)’

“지금 우리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가르치면서 ‘우리집 미역국 이렇게 끓여요, 된장찌개 이렇게 만들어요’하고 가르쳐 줘요. 우리에게 ‘음식 모르면 물어보세요’해요. 설명을 잘해주셔도 말로만 하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아요. 한국말을 더 잘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음식하고 한국말을 같이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기도 돌봐야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 번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냥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이 빠르고 어렵게 이야기해서 알아듣기가 힘이 들어요.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선생님들에게서 센터에 가서 배웠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2)”

“한번씩 한국음식 가르쳐주는 요리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이 너무 빠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어려워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다 한번씩 가르쳐주니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계속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3)”

“시아버지가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해서 못나갔어요. 지금은 시아버지가 아파서 요양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남편이 나가서 배워도 좋다고 해서 센터에 나온 거예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잘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주어서 오게 되었어요... 한국음식에 대해서 꾸준히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배우면서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요...(연구참여자 4)”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된장, 시래기국 끓이는 법, 나물하는 법 조금씩 조금씩 배웠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텔레비전으로 배웠어요. 수퍼를 하니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

래서 텔레비전으로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잘 설명된 책과 동영상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은 너무 말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었거든요.. (연구참여자 5)”

“시어머니가 마산에서 한번씩 오시면 가르쳐주세요. 내가 아직 잘 못하니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요. 주민센터같은 곳에서 가르쳐준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런 정보는 통 알지 못했어요. 시간을 내어서 가봐야겠네요... (연구참여자 6)”

## 고 찰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식문화 적응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총체적 경험의 본성과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요진술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식문화 적응 경험의 주요 범주는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했던 시작’,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도움’, ‘고향과 다른 한국 식문화’, ‘여건에 따라 다른 한국 식문화 수용 형태’, ‘모국 식문화의 공유’, ‘현실적 어려움과 기대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의 배우자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 과정이 없이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한국의 생소한 문화 및 언어에 노출되어, 이주초기부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Kim & Jung[18]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의식주의 모든 측면에서 많은 문화적 차이로 불안과 우울 등을 경험하는데, 식생활(47.3%)이 자녀양육 방식(14.3%), 가족행사 등 가족의례(14.1%)에 비해 높은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인은 가정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한국 음식문화 적응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 초기에 가장 먼저 접하는 과제가 되며 [19],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모국과는 다른 음식 맛, 요리법, 식재료, 식문화, 식습관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식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지식을 이주초기에 반드시 교육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im & Han[12]의 연구에서 ‘결혼기간 1년 미만’에서 56.3%가 한국 전통 식문화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초기 식문화에 대한 교육지원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전



통식문화교육은 전통음식조리법, 상차림과 예절, 전통음식, 영양 등의 순이고 전통식문화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 어려운 점은 언어, 조리용어, 전통문화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난 점은 교육프로그램 계획 시 감안해야 할 요소로 생각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음식문화 적응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잘 먹느냐의 문제에서부터 한 가정의 식사를 책임지고 준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주부로서의 역할과 가족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5, 20].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시어머니나 남편, 가족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이므로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오히려 개인적 성격이나 게으름, 무능함 때문으로 생각하는 점과 빈곤한 국가 출신임을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갈등 발생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들이 함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뿌리가 되는 원문화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만들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21]. 가족들이 이를 이해하며 존중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향후 한국의 창조적 다문화 사회의 문화문화형성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조선족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외국생활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 한족이 섭취하는 부식을 먹고 중국의 식생활양식에 동화되어[22] 오히려 중국 한족과 유사한 식생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 관련 교육이나 상담 시 유의하여 접근해야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어머니의 무조건적인 한국음식 적응 요구와 식문화 차이에 대한 몰이해는 며느리와의 사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오랫동안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있음을 참여자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Kim과 Lee[23]도 가족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강요와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지적한 바 있다. Sung 등[24]의 보고에서 시어머니는 외국인며느리가 한국인 며느리처럼 해주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그들을 도와주어야하는 대상으로 지각하고 온정적이며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고도 하였지만, Yoon & Lee[2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갈등원이자 지지원으로서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며, 초기에는 며느리가 한국문화 및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해하고 한

국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문화는 가부장제에 따라 시댁중심의 문화에 며느리가 친정의 가족문화를 버리고 시댁의 가풍에 맞추는 것이므로,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한국 식문화에만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식문화 적응에 적극적이면서 자국의 식문화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모국문화를 버려야 한국문화에 적응을 잘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수용해주어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22]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을 위한 초기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희망자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하여 결혼하여 이주한 아내나 며느리의 모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본다.

식생활문화 적응은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식생활 패턴이나 음식 구입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개인적 문화적,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6]. 결혼 전 본국에서의 식생활과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식문화에 단기간 내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식생활문화 적응은 이주자가 이민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호적인 과정이며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버리고 일방향의 새로운 문화적응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다[27]. 따라서 한 방향으로의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 문화적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만하게 식생활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 전체의 건강, 나아가서는 국민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Berry[28]는 문화적응의 유형을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는 통합유형,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에는 소극적이고 새로운 문화만을 지향하는 동화유형, 새로운 문화의 수용에는 소극적이며 모국문화 유지를 지향하는 분리유형, 모국문화유지와 새로운 문화 수용에도 소극적인 주변화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동화유형과 통합유형을 보였는데, 개인의 성격과 평소 식생활에 대한 자세, 생활태도에 따라 다른 유형을 보였으며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면서 자긍심이 강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

국 식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가족과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통합유형을 보였다. Jung & Yang[2]도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음식에 자발적으로 동화되기도 하고, 가정의 식생활관리의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출신국의 음식과 한국음식을 통합하는 문화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나이가 어리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의 경우는 한국 식문화만을 지향하는 동화유형을 보였는데, 이는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식사에 길들여져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도 있었다는 보고[4]와 맥락을 같이 한다.

Kim & Park[29]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와 차이를 극복해가는 경험 및 문화적응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현상에 익숙해져가는 것’,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한국인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알게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지원을 통한 문화적응 이상으로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친정부모님이 가사를 도와주고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는 한국식문화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국 식문화가 유지되어 자녀들과 주부가 한국식문화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Jung & Yang[2]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통합 33.1%, 주변화 30.6%, 동화 19.7%, 분리 16.6%순으로 나왔다고 보고하면서 고국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는 한국사회와는 동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생활은 편할지 몰라도 아이들의 적응과 본인의 적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과제이므로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을 면접하면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정책의 미흡이 무엇보다 큰 약점으로 판단되었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양 국가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청된다. 한국동화주의에서 벗어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4].

참여자들 중에는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들의 이용경로를 모르거나 아예 정보가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분산되어 추진되다보니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

으므로[30] 홍보와 전달체계의 점검과 사각지대의 해소로 서비스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가정 사업들이 일회적인 경우가 많고 기관에 따라 중복 제공되며,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차원의 전문 서비스 기관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31].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한국생활 적응의 동기를 부여해 주기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들에서 제기되었고, 그들이 한국생활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식문화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4, 6, 8, 32-34]. 그러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 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식문화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으며, 배운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이해부족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한국 식문화교육을 위한 시간을 배정하고 언어 실력이 부족한 점을 배려하여 교육방안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식문화 이해의 관점에서 연구된 실질적인 교육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식생활 전반에 걸친 문화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교육교재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내지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만,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체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기술이 가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식문화 적응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식문화에 더 잘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연구나 효과성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식문화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식문화 적응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총체적 경험의 본성과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거주기간 3년 이상의 결혼이주여성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결과는 Giorgi가 제시한 현

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116개의 주요진술, 17개의 범주, 6개의 주제군 ‘사전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했던 시작’,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도움’, ‘고향과 다른 한국 식문화’, ‘여건에 따라 다른 한국 식문화 수용 형태’, ‘모국 식문화의 공유’, ‘현실적 어려움과 기대하는 서비스’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전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였고, 사전준비가 부족한 채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어와 문화차이에 의한 갈등양상이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고부갈등은 한국어성들이 경험하는 고부갈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나라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조건 한국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듯 했고,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며느리나 올케에게 차근차근 가르치기보다 야단치며 잔소리로 기를 죽이는 경우도 드러났다. 시어머니가 친절히 가르쳐주는 경우나 며느리가 부지런하고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며느리도 음식을 빨리 배우고 일상생활의 적응도 빠르게 하고, 따라서 좋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이전까지 익숙했던 자국의 생활에서 한국의 문화에 적응되고 동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근차근 배운 경우와 달리 이해받지 못하고 야단맞으며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경우에는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법이나 사용 양념의 차이, 상차림이나 식사예절의 차이,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는 것, 친인척을 찾아가는 것 등을 생소한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있었다. 생일문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는 어려움은 있지만 수용하면서 적응해야 할 문제들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주부가 고향음식도 원만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고 가족의 입맛에 맞게 한국식으로 변용된 모국음식을 만들어 공유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반면 가족이 한국음식 먹기를 강요하거나 모국음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모국음식을 접하지 못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한국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어머니나 남편 등 가족이나 친구에게 음식을 배우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배웠고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방법이 본인의 형편과 맞지 않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들의 이용경로를 모르거나 아예 정보가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에서 실시하

는 방문서비스는 참여자들이 가정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방문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누군가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자신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강사가 수강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험을 피력하였다. 시간이 없으므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음식만들기를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이해도 잘되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책이나 동영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체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기술이 가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식문화 적응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보다 용이한 정착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요구를 감안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해볼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5 Status of marriage immigrants [internet].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6 Aug 10]. Available from: <http://kosis.kr/>.
2. Jung SO, Yang SJ. Types of dietary accultur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dietary factor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J Korean Data Anal Soc* 2015; 17(5): 2675-2689.
3. Kim SG, Lee CJ.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 Fam Welf* 2010; 15(1): 5-20.
4. Kim JE, Kim JM, Seo SH. Nutrition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a multicultural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ith female immigrants and nutrition education professionals. *Korean J Nutr* 2011; 44(4): 312-325.
5. Park YS, Chung YS. Korean traditional food perception and cultural aspect of Korean Mongolian housewives. *Korean J Food Cult* 2005; 20(1): 35-43.
6. Lee JS. Development of a Korean food culture education textbook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 Community Nutr* 2016; 21(5): 415-425.
7. Choi WS. A study on the social-cultural adaptat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J Asian Women* 2007; 46(1): 141-181.
8. Lee JS. The factors for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of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Busan.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2; 41(6): 807-815.
9. Han YH, Shin WS, Kim JN.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migrants. *Comp Korean Stud* 2011; 19(1): 115-159.
10. Park YI, Jeong HS, Joo NM.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wives adapting to Korean cuisine and dietary patterns. *Nutr Res Pract* 2010; 4(5): 405-413.
11. Kim SH, Kim WY, Lyu JE, Chung HW, Whang JY. Dietary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Korean spouses and correlations of their diets. *Korean J Community Nutr* 2009; 14(1): 22-30.
12. Kim HM, Han KS. The diffusion stage of Korean food by the food acculturation type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J Tour Sci* 2015; 39(10): 13-32.
13. Jang BS. A study on dietary life of female immigrant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9.
14. Dukes 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 Relig Health* 1984; 23(3): 197-203.
15. Shin KR, Jo MO, Yang J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4. p. 243.
16. Giorgi A.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 Phenomenol Psychol* 1997; 28(2): 236-260.
17. Sandelowski M.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 Nurs Sci* 1986; 8(3): 27-37.
18. Kim HS, Jung YM.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J Korean Data Anal Soc* 2011; 13(5): 2417-2432.
19. Cha SM, Bu SY, Kim EJ, Kim MH, Choi MK. Study of dietary attitudes and diet manage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according to residence period. *J Korean Diet Assoc* 2012; 18(4): 297-307.
20. Park HM, Moon ST.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immigrants in rural area for social adjustment education. *J Agric Educ Hum Resour Dev* 2008; 40(2): 69-91.
21. Hwang JY, Lee SE, Kim SH, Chung HW, Kim WY. Psychological distress is associated with inadequate dietary intake i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J Am Diet Assoc* 2010; 110(5): 779-785.
22. Asano K, Yoon JH, Ryu SH.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etary life after immigration to Korea: Comparison between Han-Chinese and Korean-Chinese. *Korean J Community Nutr* 2014; 19(4): 317-327.
23. Kim JH, Lee MH. Dietary behavior of marriage migrant women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y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 Community Nutr* 2016; 21(1): 53-64.
24. Sung EY, Kwon JE, Hwang ST.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rural areas. *Korean J Woman Psychol* 2012; 17(3): 363-383.
25. Yoon MS, Lee H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other-laws with foreign-daughter-in-laws in rural area. *J Rural Soc* 2010; 20(2): 191-232.
26. Satia-Abouta J. Dietary acculturation: definition, process, assessment and implications. *Int J Hum Ecol* 2003; 4(1): 71-86.
27. Saita-Abouta J, Patterson RE, Neuhouser ML, Elder J. Dietary acculturation: application to nutrition research and dietetics. *J Am Diet Assoc* 2002; 102(8): 1105-1118.
28. Berry J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 Psychol* 1997; 46(1): 5-34.
29. Kim YS, Park JY. Experience of accultura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Korean J Fam Soc Work* 2010; 30(30): 269-298.
30. Huh CH, Im KS. A study on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Busan. *Korean J Local Gov Stud* 2011; 15(4): 201-228.
31. Kim JM, Lee NH. Analysis of the dietary life of im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Daegu area. *J Korean Diet Assoc* 2009; 15(4): 405-418.
32. Kim SH, Kim WY, Lyu JE, Chung HW, Hwang JY. Dietary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Korean spouses and correlations of their diets. *Korean J Community Nutr* 2009; 14(1): 22-30.
33. Ju WR, Yang MH. A study on Korean cultural education needs of the immigrant women in Korea. *J Korean Lang Cult* 2011; 8(1): 175-203.
34. Kim MA. A study on the teaching Korean education methodology through cooking activities: for immigrant married woman [master's thesis]. Kyung Sung University; 2012.